

“대한독립 만세” 광주서 107년 전 함성 다시 울렸다

1919년 광주 3·10 독립만세운동 재연 행사… 수피아여고·송일고 재학생 등 1000여 명 참석

107년 전 민족의 자주독립을 목놓아 외쳤던 만세운동이 광주에서 펼쳐졌다.

광주 3·1운동 기념사업회와 남구는 6일 오후 광주 남구 양림동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에서 광주3·10만세운동 재연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수피아여고·송일고 재학생과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고(故) 정광호 열사 등을 기리는 3·10독립만세운동상 시상, 재학생과 김병내 남구청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남호연 남구의회의장 등 내외빈 29명의 독립선언문 낭독, 3·1절 노래 제창과 만세삼창 순으로 이어졌다.

행사 이후에는 107년 전 광주에서 열린 만세행진 재연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가 진행된 수피아여고는 1919년 광주 3·10만세운동의 구심점이다.

수피아여고의 전신인 수피아여학교에서는 3·10만세운동 당시 제1회 졸업생 박애순의 지휘 아래 대대적인 만세 시위가 열렸다. 만세 시위 끝에 학생 23명이 옥고를 치렀다.

재학생들은 선배들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기리고자 당시 복식인 검은색 치마와 흰 저고리를 차려 입은 채 태극기를 양손에 쥐고 교정을 나섰다.

행진을 시작한 재학생들은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양림교회, 만세운동 태동지,



6일 오후 광주 남구 양림동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에서 광주3·10만세운동 재연행사가 열리고 있다. 재학생들이 당시 수피아여고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만세행진을 벌이고 있다. /뉴스시스

3·1만세운동길을 거쳐 양림오거리까지 향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목놓아 외쳤다. 뒤따르는 참석자들도 태극기를 연신 흔들며 환호했다.

행사에 참여한 고수빈(18) 수피아여고·김강호(18) 송일고 학생회장은 “3·1 만세운동 107주년을 맞아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며, 그 정신을 계승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발전시켜 온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새겼다”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지역과 세대를 넘어 하나 되어 자주독립과 대동단결의 정신으로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희 광주 3·1만세운동 기념사업회

상임대표도 “작년부터 학생들이 더욱 많이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고 있다.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고 더 알게 하기 위해 직접 참여도를 높였다”며 “행사를 통해 헌신과 대동의 정신이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권철 기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 잔해물 추가 조사 과정에서 희생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잇따라 발견됐다.

6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이날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기 잔해물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 7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발견된 물체는 DNA 분석과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져 정밀 감정을 받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잔해 조사서 ‘유해 추정’ 또 발견

전날 1점 발견 이어 7점 추가… 유류품 87점도

다. 이밖에 휴대전화와 여권 등 유류품 87점도 함께 확인됐다.

앞서 전날 진행된 3차 잔해물 조사에서 대형 자루에 담긴 잔해물을 선별하던 중 희생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길이 3.5cm 물체 1점이 발견됐다. 해당 물체 역시 국과수에 보내져 감정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2차 잔해물 조사에서는 희생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뼈 1점이

발견됐으며, 이후 국과수 감정 결과 실제 희생자의 유해로 확인됐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앞으로도 희생자 유해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사고 초기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유가족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오는 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초기 수습 부실과 국

가 책임 방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지난달 12일부터 활주로 주변에 흩어져 있던 사고기 잔해물을 컨테이너 4동으로 옮겨 보관하며 잔해물 분류와 기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유류품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서도 수집하고 있다.

부피가 큰 기체 꼬리날개 등 일부 잔해는 별도의 가건물을 설치해 보관하고 있으며, 조사는 10여 명씩 3개 조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잔해물 조사는 앞으로도 10차례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송현근 기자

광주시가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돕기 위해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난임 부부의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난임부부에게는 3개월간 한약 복용 비용과 혈액검사비 등을 포함한 1인당 최대 124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6

‘난임 부부 한방치료’ 광주시 최대 124만원 지원

개월 이상 광주시에서 거주한 난임 부부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은 44세 이하이면서 마지막 보조생식술(체외수정·인공수정) 종료 후 3개월 이상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남성은 해당 여성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

상이 된다. 지원 대상자는 한방난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지정 한방 병·의원 27곳에서 개별 검사 결과와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한방치료를 3개월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이후 3개월 동안 임신 여부와 건강 상

태에 대한 경과 관리도 함께 진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광주 시한의사회에 문의한 뒤 난임진단서와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며 “난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광훈 기자

올 겨울 호남권 저체온증 사망 5명… 전남 3명

한랭질환자 49명…전남 24명·전북 13명·제주 8명·광주 4명

사망자 80대 여성·실외 발견·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 동반

이번 겨울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 매서운 추위로 인해 나타나는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으로 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호남권질병대응센터가 발표한 ‘2025년 12월1일~2026년 2월28일 호남권 한랭질환자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신고된 호남권 한랭질환자는 총 49명으로 이 중 5명이 숨졌다.

한랭질환자는 지난 2024년~2025년 51명 대비 2명 줄었지만 사망자는 응급실 감시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다. 사망자 수는 2021년~2022년 3명, 2023년~2024년 2명 순이다.

사망자의 지역은 전남(장성·담양·광양) 3명, 전북 고창 1명, 제주 1명으로 모두 80대 여성이다.

사망자는 모두 주거지 주변·길가·논밭 등 실외에서 발견됐으며 제주지역을 제외하고 4명은 치매·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을 동반한 저체온증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또 2025년~2026년 한랭질환자 성별은 남성 32명, 여성 17명이며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18명, 70대·60대 각각 10명, 50대 이하 11명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24명, 전북 13명, 제주 8명, 광주 4명 순이다.

질환별로는 저체온증이 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재성 동창 2명, 다발성 동창 및 동창 1명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알 수 없음 10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 7명, 학생 4명으로 파악됐다.

윤정환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은 “고령층은 겨울철 한랭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한랭질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민규 기자

35년 만에 전남에 동지 뜬 멸종위기 ‘황새’ 올해도 올까?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황새가 35년 만에 전남에서 번식을 성공한 뒤 올해도 영산강 습지를 다시 찾아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는 2024년 전남 나주시 영산강습지에서 발견됐다.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어미 황새 하얀이(E97)는 수컷 마루(E61)를 만나 습지에 흩어져 있던 사고기 잔해물을 컨테이너 4동으로 옮겨 보관하며 잔해물 분류와 기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유류품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서도 수집하고 있다.

부피가 큰 기체 꼬리날개 등 일부 잔해는 별도의 가건물을 설치해 보관하고 있으며, 조사는 10여 명씩 3개 조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잔해물 조사는 앞으로도 10차례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송현근 기자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구조물이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지역에 터를 잡은 것으로 분석했다.

나주시도 황새가 지역 내에 터를 잡은 것으로 보고 황새의 안전한 번식 활동을 위해 지난 1월 말 영산강습지 인근에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인공 동지를 마련했다.

영산강습지는 물고기 등 먹이가 풍부한 조건을 갖췄다. 특히 황새의 특성상 자신을 위협할 다른 생물이 거의 없어 이곳까지 내려와 번식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새인 황새는 봄철에 내려와 추위지기 전인 여름 끝자락까지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남아시아 등 따뜻한 곳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올해도 황새가 영산강 주변에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영산강 인근은 황새가 주변을 넓게 조망하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형이고,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황새의 특성상 이 일대에는 황새를 위협할 만한 생물이 거의 없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2024년부터 멸종위기종인 황새가 매년 찾아오고 있다. 시에서도 황새를 위한 서식지 보호와 꾸준한 관찰을 통해 생태친화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